



3월의 기도

1. 봄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명 구원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의 불길에 속히 사그라지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오기를 기도합니다.
 3.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 우리나라와 세계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균등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재능을 심본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5.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빛과 희망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열왕기하 6:16)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취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근원적이고 무궁무진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근원적인 세계에 속한 새로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계는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계획대로 형태를 갖추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었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창검들이 아침 햇빛에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사환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같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불병기와 불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현실로 옮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아람 왕의 군대처럼 사탄의 권세가 진을 치고 있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하여 도우시는 그 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2003년 해외성회

< 대만 성회 >



▶ 미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단이 보이는 통로나 계단에 자리를 잡았다.



▶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



▶ 설교 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에 함께 한 바구니



▶ 천수이벤 총통의 초청으로 이뤄진 만남은 예정보다 긴 시간 동안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03년 9월 17일과 18일, 극동 아시아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조용기 목사초청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한 성회(Breakthrough And Revival Conference)'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대만의 150년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볼 때 1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70만명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다. 당시 교파를 초월해 활발한 성령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던 대만목회자연합회는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연인원 5만 여명이 참석을 하여 대만성회 사상 신기원을 이룩하기도 했다.

연일 섭씨 40도가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 초청성회가 개최되었던 날, 수도 타이베이 대만대학교 종합체육관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성회가 시작되

기 수 시간 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성회가 시작되면서 8천여석의 좌석을 모두 매웠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강단이 내려다보이는 2층 복도와 난간에까지 자리를 잡고 성회에 참석했다.

조용기 목사는 17일과 18일 성회를 이끌면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대만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성회를 준비해온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만교회에 복음주의적인 찬양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성회를 준비하면서 달라진 대만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성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승려가 결신을 하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등 500여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50여명이 병 고침을 받는 다양한 기적이 일어난 성회였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성회가 개최되기 전 당시 대만 천수이벤 총통의 초청으로 대만 총통부를 방문, 성회에 관해 환담하고 양국의 경제 발전과 관계 개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당시 대만 총통이 외국의 종교지도자를 총통부에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타이완TV와 차이나TV, 타이완 신문 등 대만의 유수한 언론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만은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한 성회' 이후 복음전파를 향한 열정을 기울인 결과 그 성과가 이룰 수 있었다. DCEM은 올해 9월 대만 카오슝에서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만이 중화권 선교 허브로 부흥하길 기도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 (마가복음 8장 1-9절)

2.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싸움에 밀리면 패합니다. 인생은 다 그 래요. 반드시 생각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지면 실제 행동에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죄와 절망의식, 패배의식, 저주의식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천국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채워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려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들을 먹일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돈도 없지, 떡을 구할 곳도 없지요. 날도 저물었고 어디에서 떡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떡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생각을 모르고 주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먹일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안드레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알고, 떡집이 없는 것도 알고, 해가 저물어 가는 늦은 것도 알았지만 안드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계산을 넣지 않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하되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복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 생각을 지켜라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길이 있고 성결하게 되는 길이 있고 병 낫는 길이 있고 복 받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의의 길이요 성결의 길이요 치료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생각부터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안 된다, 못 한다.' 그런 생각은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잘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인격의 근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예수님을 모셔 들이며 그 뜻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므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차원의 영성

- 꿈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영적 피조물이다(고후 5:17).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영적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면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세계, 곧 4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으며,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받아누려야 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4차원의 영적 원리를 공부하면서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다. 오늘은 이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네 가지 핵심요소 가운데 세 번째인 '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꿈의 속성

꿈은 신비의 영역이다. 오직 현실과 상황만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꿈을 꾸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4차원의 영적원리로서의 꿈이란 이렇게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소원과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한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꿈'도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꾸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꿈은 고귀한 결실로 이어진다. 마틴 루터의 꿈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꿈이, 임원심선교사의 꿈이 그러했다. 반면, 욕심과 이기심으로 잉태된 꿈은 한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비극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우리는 꿈의 이 같은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르고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한다.

2.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성경 속



의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 아브라함(창 15:1), 야곱(창 31:11~13), 요셉(창 37:5), 솔로몬(왕상 3:5), 에스겔(겔 11:24), 다니엘(단 2:19), 마리아의 남편 요셉(마 1:20), 동방박사들(마 2:12), 베드로(행 10:9~16), 바울(고후 12:1~4)이 모두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삼중으로 타락하여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해 삼중구원과 삼중축복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꿈을 꾸게 하였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인류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롬 5:10)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3. 꿈꾸는 자

하루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불렀다.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요셉이 형들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며 빈정댔다(창 37:19). 그리고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20절)라며 요셉을 죽일 생각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후에 모든 일은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졌다(창 39~45장). 꿈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끌어간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4차원의 영적언어이다.

거룩한 꿈을 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꿈



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꿈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간다. 그러나 꿈이 없는 백성, 목사가 없는 사람들은 계획도 실천도 없이 살다가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만다(잠 29:18). 꿈이 있으면 순례자이지만, 꿈이 없으면 방랑자일뿐이다. 이 시대에는 현실을 보고 체념하는 자가 아닌 '꿈꾸는 자'가 필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현실로 옮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려 애쓰고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꾸는 거룩한 꿈의 힘과 파장은 실로 거대한 것이다. 현실 세계를 초월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한다.